

# 고철덩어리의 외로운 생

## 박중기 \_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의장

글 · 최현정 chhjung@paran.com

박중기 선생님의 호는 ‘현쇠’이다. 인권변호사 이돈명 선생님께서 지어주었다 한다. 1975년 2차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살아남은’ 이후 고철 장수를 하며 살다 받은 이름이라 한다. 좋은 쇠를 얻기 위해서는 선 철만 있어서는 안 되고 꼭 고철이 섞여야 한단다. 자신의 온몸을 녹여 새로움을 얻는다, 그것이 현쇠의 뜻이다.

### 선하고 어린 자들의 죽음

“내가 난 고장은 경상남도 밀양이에요. 1934년. 나는 빈농 출신인데 그 중에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 가하면 농사를 못 짓는 빈농은 생활이 궁핍하고 그랬죠. 그런 고장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시골은 일본 관료들이 지시를 내리면 면서기 혹은 거기 준하는 조선사람 관료가 전하고, 사람들은 그 걸 순응해야 하는 틀에 잘 짜인 일사불란한 조직이었습니다. 어린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부역 나와라, 도로 정비하러 나와라, 그러면 모두 따라야 하는 그런 엄격한 곳에 살았어요.

내가 4학년 고학년이 되면서 일본도 전쟁이 막바지로 치열해지면서 인력이 모자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모두 초기에는 감언이설을 해서 군에 가면 좋다고 데려갔는데 나중에는 숫자가 안 차니까 강제 징용해 동원해 갔어요. 그러니까 농촌에 농사를 해야 하는데 기회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못 지으니까 누굴 동원해요, 어린이를 동원하지. 그런 어린 애들이 일을 한다지만 개구쟁이 짓할 만한 나이인데, 노동을 당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나머지는 반공 훈련을 합니다. 박정희 말기와 똑같아요. 초등학교들에게 군사 훈련 시키고, 그렇게 집단으로 인솔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애들이 다 따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잘 안되면 어린 애들이 폭력에 시달리는 거죠. 그게 우리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8·15 이후에도 바뀐 것은 없었다. 일제시대 칼을 찔던 순경들은 이제 총을 차고 다녔고, 일본인

과 이를 따르던 조선 면서기들이 했듯 이제 미군들과 우익청년들은 양곡을 빼앗아갔다. 양곡을 요구하던 농민들의 저항은 훗날 대구 10·1 사건, 삼남지방 2·7 사건으로 기록되었는데, 그렇게 가장 가난했고 가장 학대받았던 사람들은 결국 빨갱이로 몰린 채 죽임을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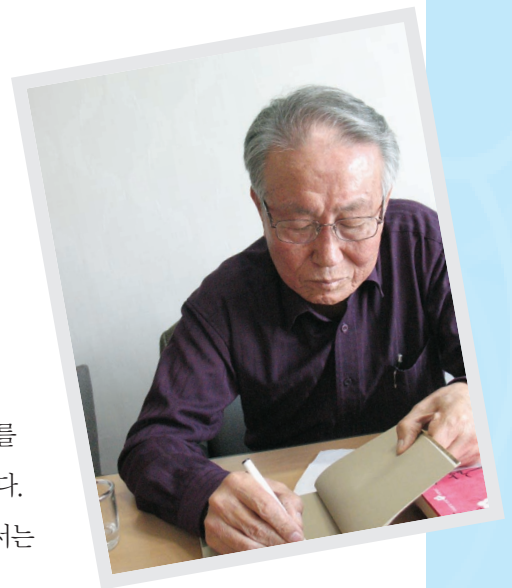
“어릴 때 친일하던 면서기 아저씨가 어느 아저씨를 발길질하고 귀싸대기 때리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면서기가 48년 대한민국 정부 되니까 상당히 높은 사람이 되어서 마을에 돌아온 거야. 해방되니까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군림하니까 어린 마음에는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싶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니까 선배들에게 약간의 교육을 받았지요.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한가? 부자는 왜 부자인가? 부자는 운수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을 깨우친 것이지요.

2·7 사건 때는 방학 때니까 집에 있었는데 우리 아저씨를 잡아가서 얼마나 두드려 뺐는지. 시골 친척들이 가마니에 대를 꽂아서 거기다 완전히 송장이 된 사람을 신고 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를 귀여워했던 제일 어린 아저씨였는데 저 아저씨가 저리 다쳐왔다는 것. 그래서 내 속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6·25 이후에는 많은 선배들이 군대를 간다고도 하고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 사람이 보도연맹사건으로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나하고 같이 했던 선배들, 따뜻한 형들이. 그런 사람들이 풍비박산이 되어가, 다...”

선하고 어린 사람들이 누구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면서 곁에서 점차 사라져 감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인터뷰 중에도 살해당했던 사람들에 관한 기억들은 거세게 문을 두드리며 불쑥 찾아오곤 했다. 그렇다면 똑같이 아끼던 사람들을 살해당해 잃은 동시대자들의 시절은 어땠을까. 서로 말이 없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니 51년에 부산으로 유학 가 했던 고등학교 생활도 삭막하기 그지없었다. 그 때에도 모든 대화는 죽음으로 귀결 되곤 했다.

**“우리는 그렇게 신뢰하고 살았습니다.”**

죽음으로 그늘진 곳에 ‘햇볕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평생 함께 걸기를 약속했던 친구들을 만나면서였다. 이들의 모임은 ‘암장(岩漿)’이라 불렸다. 인터뷰 도중에 잠시 불일을 보시면서 “일은 우리가 뒤에서 하고, 앞에 나서는



좋은 일은 남 시켜줍시다”하시던 말씀을 엿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일은 많이 하고 공은 남에게 준다’는 암장의 규칙이기도 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깊은 곳에 암장이 살아있었던 거다.

“고향 친구가 다른 학교에서 자기가 친해진 사람이 있는데 좋다 그래요. 그래서 학교가 다른 교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도 형제가 없는데다가 선배들 모두 풍비박산 되어서 나 혼자 외롭게 지냈는데 이 친구들 인간적으로 참 좋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재밌는 겁니다. 이렇게 친해지니까 우정의 깊이가 폭은 안 넓어도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사이가 된 거지요. 그러면서 말문도 열리고 식견도 나뉘 이야기하고, 그러다 한 2년 지나면서 이렇게 아니다, 환경은 지극히 나쁘지만 정신적으로 이렇게 친해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만 할 게 아니다, 목적의식적으로 뭐 좀 이야기를 만들어내자 했습니다.”

“스승을 구할 수도 없고, 말실수하면 학생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었던 엄혹한 때에, 3년 동안 신문배달을 하면서 골목마다 헤매고 다니니까 책방을 잘 알아서 듣도 보도 못한 책들을, 신문배달 남은 돈으로 책을 사가지고 돌려보았습니다. 책을 읽고 서로 토의를 하고 아는 사람은 설명을 해주고, 청년으로서 오늘의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떠오른 감성대로 생각을 열어놓고 비판도 받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서클이 되었어요. 그게 내 스스로 위로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3학년 졸업하고도 용케 흠어지지 않고 반려되는 동지로 늦게까지 살았죠. 그 시간이 흐르면서 두꺼워지니까 사회에 대한, 소위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우리는 또 뭔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생기고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으로 죽이고 학살하고 그리 다 싹쓸이 했는데 7년 후에 4·19가 생겼습니다. 그거를 바로 잡은 것이 5000년 역사에 처음, 민간인이 무기도 없이 부당한 정권을 무너뜨린 것이 4·19란 말입니다. 60년 4·19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혁명이 되려면 후속 세력이 정신을 받들어 민주정권을 세워야 하는데 그 세력을 다 죽였던 말이에요. 그게 빨갱이 짓이라 이거야. 정부를 반대한다던가, 정당한 비판을 하면 빨갱이. 그게 대한민국의 정서이고 전통입니다. 대한민국은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더 포악하고 난폭해지는 모양새를 합니다. 보도연맹 학살도 그렇게 할 수 없죠. 용산이라는 것도 없고, 부끄러움과 염치를 모르는 사회...”

“이게 그래도 내 나라라고 내가 왜 이렇게요. 우리 민중의 힘이 언젠가는 극복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민중이 4·19 때 일어났고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어요. 아무나 대한민국 통치하는 게 아니란 걸 알아야 해요. 인간이 사는데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진실한, 4·19 공간에 민족민주청년동맹이라는 단체가 있었고 통일민주청년연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나는 민족민주청년동맹에 소속되어 있었고요. 남북 학생들이 판문점에 회담하자 할 때 그 심부름 하는 일과 뒷바라지 했습니다. 이제 막 모닥불 피워놓은 판에 위험이 온다는 걸 알았죠. 그러나 일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소명이거든요. 내일 위험이 오더라도 이긴 해야 하는 것. 소명을 지켜야죠. 뭐든지 조금이라도 오면 받아들일 정도로 소속된 동지들이 모두가 다 헌신적인 노력으로 했습니다. 그 공간에서는 모두가 다 그랬으니까요. 열의를 가지고 했으니까. 집단에 특이한 사명감이 생기면 그 응집력은 대단합니다. 대의명분이나 객관적 조건을 봐서 옳은 일이다, 해야 한다, 이 사명을 공유했을 때에는 대단한 응집력을 발휘하죠. 피부에 때 맞듯이 그런 도둑놈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장을 위해서 안에서부터 영양을 공급하는 훌륭한 민중도 있거든요.”



지난 2010 열사추모 문화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종기 의장

선생님은 64년 한일회담 반대 투쟁에 참여하면서 1차 인혁당 사건으로 형을 살았다. 이후 74년 유신 시절 내란음모죄라 하여 다시 형을 살았다. 2차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도 끌려갔는데, 내란음모죄라고 형을 살던 시기와 겹쳐 명분이 없어 풀려나게 되었다. 2차 인혁당 사건에서 선생님은 대부분의 반력 동지들을 잃었다. 나는 살았으니 죄스럽고 미안하다고 했다. 살았다는 것이 고맙기도 하지만 치욕스럽다고도 했다. 조금 더 열성있게 싸웠더라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겠냐고 했다. 암장의 동지이자 2차 인혁당 사건으로 살해된 후배 이수병 선생 이야기를 끝마친 주름진 두 눈은 한참을 허공에 매달려있었다.

어느 날 조선일보에서 일하자는 제의를 받은 이수병 선생이 찾아왔다. 기자. 탐스러운 꿈의 자리였다.

“형, 조선일보에서 오라는데 가면 좋지? ‘그래, 너 가고 싶지? 아 가고 싶대. 하루 지나고 난 뒤에 ‘거기 가서 너 어떤 글 쓸래. 정부 잘 한다 이런 글 쓸 거야?’ 조금 있다 ‘예, 알겠습니다’ 하더니 결국 안 가겠다 합니다. 그리고 고생길로 들어서서, 그 때가서는 맘 아프죠 내가.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신뢰하고 살았거든. 원체 믿음이 커서 그런 애길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이 무겁지요.”

### “나는 제사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운명인 듯 신념으로 제사지내는 일을 맡아하게 되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연대회의 의장으로 일한다.

“나는 이 일을 맡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죽은 사람의 인격이 자주 보여요. 이 사람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간단한 타살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려줄 테니까 타협도 하자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죽음을 택한 것이죠. 전태일이나 김상진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보면 내 속에 자꾸 그 죽음이 이래 커지고 그 인간의 위대함이 부풀려지는 것 같은데. 전태일은 창동에서 청계천까지 걸어서 다니면서 풀빵을 사가지고 실밥 뜯는 꼬마들을 사다주고는 자기는 굶습니다. 그게 교육을 받아서 그리 안 되거든요. 자기 영혼이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가식으로 그래 되질 않아요. 근데 그 사람 죽음까지 그렇게 진실하게 살은 사람을 나는 별로 못 봤고.

김상진은 죽기 전까지 정면으로 박정희에게 도전했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박정희도 아마 끔찍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열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김남주는 시를 쓰면서 자기 혼을 바치다가 모든 것이 정신적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으니까 암으로 죽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간접 살인이죠. 그런 열사를 국립묘지에 모셔야지. 이 사람들은 혼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사는 집단을 위해서 어떻게 가장 선하고 옳게 살 것인가를 천착하고 고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정성을 안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모연대를 하는 겁니다. 알아주면 고맙고 그렇지 않아도 퍼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으니까요. 인간의 인격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열사를 받든다는 것은 정신을 받든다는 거죠. 그 영혼이 왜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가장 외로울 때 그 열사들을 생각합니다.”

고철 덩어리의 외로운 생 앞에서 눈물이 쏟아진다. 살아남는다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이다. 세월의 풍파에 제 몸을 부딪쳐 가며 닳아야 했는데도 끝내 소멸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긴다. 살아온 시대 속에서 늘 헌쇠가 되고자 했던 박중기 선생님. 나는 인터뷰 내내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별 마디 말하지 못한 채 그저 듣기만 했다. 수그러든 나의 어깨가 숨을 쉬느라 들쭉거릴 때마다 헌쇠의 소멸에 빚을 진 내 영혼은 울컥대었다. 그리고 돌아와 한동안 슬픔에 빠져 살았다. “최양, 열심히 삼시다.”하시는 말씀을 되뇌며 울컥임을 겨우 멈춘다. 파괴적인 힘은 육신을 녹슬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혼만은 헌쇠로 남는다. 헌쇠는 결코 파괴당하지 않는다. 박중기

글 최현정 | 평화로운 공동체 만들기에 관심이 많은 임상심리학자. 역서에 주디스 허먼의 『트라우마』, 피터 엘사스의 『고문 폭력 생존자 심리치료』 등이 있다.